

전국 품질관리업소 대표자 회의 개최

본 협 5월19일부터 10개 항목 중 32항목 항생제검사 시행



지난 5월 9일,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새로운 항생제 검사와 관련하여 전국 품질관리업소 회의를 열었다. 한창 아까시 채밀 기간이라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쁠 시기에 시간을 내어 한국양봉협회를 찾아 준 각 업소 대표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전기현 회장의 개회사로 회의는 시작되었다.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전국 품질관리업소 대표자 회의'는 국내에 단 한 대 뿐인 항생제 검사 기계를 도입하게 된 과정과 발주 상황을 보고하고 오는 5월 19일부터 실시하게 될 9가지 항목의 항생제 검사 항목에 대한 적합 판정 기준을 손재형 연구소장이 설명하는 자리였다. 검사 비용은 봉인(항생제+보사부+탄소) 항목은 8만5천원으로 책정되었음을 공지하였다.

이날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일부지역에서 사탕무 가짜 벌꿀이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한국양

봉협회에서 수립하여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 역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 협회는 국내 양봉산업 발전과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대표자들의 건의를 수용함과 동시에 양봉농가들이 무설탕을 수입하여 천연 벌꿀로 둔갑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하는 즉시 고발해 줄 것을 권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항생제 검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으로 양봉협회가 양봉 농가를 위해 지향해야 할 행정적인 일에 관한 사항까지 토론하였다. 특히 전기현 회장은 벌꿀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자조금사업 추진하는데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는 4년간의 흥작으로 어려워진 양봉농가의 시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에 의의가 크다.